

헤닝 라센

Henning Larsen, 1925-2013



Henning Larsen / Agnete Schlichtkrull



Harpa, Reykjavik, Iceland, 2011 / Nic Lehoux

“빛의 장인, 세상을 떠나다”는 지난 6월 6월 22일 국립 덴마크 신문 Politikken의 머리기사 제목이었다.

건축사 Henning Larsen은 아주 평온하게 수면 중 세상을 떠났다. 향년 87세. 스칸디나비아에서는 그를 종종 “노르딕 현대 건축계의 등대”라고 불렀다. 그는 코펜하겐에 정착하기 전 국제적으로 1964년에는 Yale대학에서 1965년에는 Princeton에서 가르치기도 하였다.

그가 몇 년 동안 Royal Art Academy Architecture School in Copenhagen에서 가르친 후 그곳의 학장이 되었을 때 학생들 중 일부가 이념에 빚대어 학교를 일컬어 종종 “마르크스주의 기관” 또는 “빨간 학부”라 부르기도 했으나 그것은 그의 성향과는 아주 거리가 멀었다.

그는 정치적인 관계에서는 어떠한 역할도 거부하고 디자인 자체가 변화의 주요 엔진으로 작용 하게끔하여 학교가 조심스럽고 올바른 변화를 가지게끔 이끌어낸 아주 따뜻한 신사였다. 그는 디자인의 힘을 믿는 예술가였지만 그 반면 그는 또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 그 장소의 역사와 context를 아주 열심히 공부, 연구하는 학자와 같은 면도 있었다. 또한 덴마크의 건축이 한동안 너무나 지루한 휴면기에 빠져 있을 당시 그는 학생들에게 스칸디나비아 바깥인 더 크고 재미있는 곳에 가서 폭 넓고 빠르게 경험을 쌓는 것을 그의 학교 학생들에게 허가해 주었다. 이로써 그의 학교는 아주 빠른 속도로 코펜하겐에서 가장 진학하여 공부하기를 선택하는 학교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Henning Larsen 그 자신도 the Royal Art Academy School of Architecture in Copenhagen에 1952년도에 졸업한 동문이다. 그가 AA런던과 보스턴의 MIT에서 공부하던 시절 그는 이미 외향적이며, 실험적이며, 지적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국제적인 교육 배경과 광범위한 여행의 특별한 경험을 가졌음에도 어렵게 얻은 “edu-tainment” 건축 교육 형태를 그의 작업에 그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그는 아주 보통의 겸허한 배경을 가진 학생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Ringkøbing 지역 근처 Opsund의 학교 선생님이었고 이것은 그의 작품의 근간이 된다.

졸업 후 Henning Larsen은 짧게 Arne Jacobsen사무소에서 실무를 쌓은 후 1956년도에 Gehrdt Bornebusch and Jørgen Selchau와 함께 작은 사무실을 개소한 후 3년 후 독립하여 Henning Larsen’s Tegnestue이라는 그만의 사무소를 그의 학생 한명을 고용하여 개소한다. 지금은 Henning Larsen Architects라 명명된 그의 사무소는 1980년도에 스칸디나비아에서는 가장 큰 설계 회사 중 하나로 코펜하겐, 오슬로, 뮌헨, 이스탄불, 리야드에 등지에 분소를 가진 국제 규모로 성장하였다. 오늘날 그의 회사 홈페이지는 170개가 넘는 설계 하였거나 지어진 프로젝트들을 소개하고 있다. 물론, 이중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로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 Riyadh (Saudi Arabia, 1984), The Danish Embassy in Riyadh(Saudi Arabia, 1987), The Malmö Stadsbibliotek(Sweden, 1997), and in Denmark the Handelshøjskolen(1989), the Enghøj Church(1994), the Ny

Carlsberg Glyptotek(1996), and the Copenhagen Opera(2004)을 꼽을 수 있다.

바로 지난해 Henning Larsen은 예술분야의 노벨상이라고 여겨지는 Peaemium Imperiale Prize를 수여 했다. 그는 그러한 영광스런 상을 수여한 최초의 덴마크인이 되었다. 올해 Henning Larsen이 atterii & Architects and Studio Olafur Eliasson와 협업하여 설계한 Reykjavik concert hall Harpa가 The Mies van der Rohe Award 2013을 수상하였다.

그 빌딩 옆을 배를 타고 지나가면 노르딕의 한여름의 빛 즉, 낮게 깔리는 태양빛의 일렁임, 적극적으로 도시효과를 유도하여 건물 외관이 수면위에 반영되도록 완벽히 계획되어져 장관을 이룬다. 이 관경은 왜 Larsen 이 종종 빛의 마술사라고 불리게 되었는지를 알게 해 준다. Henrik Sten Møller이 Larsen의 75세 생일에 취재를 했을 때 Larsen 자신도 이 호칭에 대해 수긍하는 분위기였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언어에서 가진 미묘한 다름을 그들 생활 속 빛의 중요함으로 표현 하지 못한다.” 라고 그는 말했다. “나는 항상 무언가 내 빌딩에서 빛의 축제를 원했다.” 라고 Larsen은 밝혔다.

1967년에 Larsen 은 Aarhus에 작지만 강력한 효과를 내는 빛의 틈을 가진 단순하게 만들어진 빛나는 작은 채플을 설계하였다. Larsen의 프로젝트는 장소의 역사성, 물리성, 문화적 내용들을 잘 고려하여 입지하고 있고 빛과 그림자의 절묘한 배합을 통한 조각적으로 아름다운 공간을 가지고 있다. 그는 결코 개인

적인 이고나 브랜드 효과에 현혹되지 않았으며, 대신 각각의 프로젝트의 기본적인 개념과 질을 추구하였다.

Henning Larsen은 언제나 건축계를 위한 후원에 적극적이었다. 그가 젊은 시절 새로운 교수였을 때, 건축 잡지를 발간한 코펜하겐의 첫 번째 갤러리인 SKALA를 시작하였다. 그는 SKALA를 오랜 시간 동안 사비로 운영하였고 수많은 세계적인 건축사들을 초청하여 전시하고, 강연을 주선하며, 그들과 나눈 광범위한 대담들을 출판하였다.

SKALA는 덴마크 건축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었다. 2001년도에 Larsen 은 Henning Larsen Foundation을 그의 사비로 발족 시킨다. 이 재단은 덴마크 건축을 진작시키고 널리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매년 그의 생일날 한 개나 두 개의 상금이 수여 된다.

2008년 Henning Larsen 설계 회사는 UN과 국제적 기업 간의 파트너십인 United Nations business network, Global Compact에 가입한다. 이것은 기업 사회 환원과 친환경 건축 실습을 목적한다.

덴마크 건축은 항상 빛으로 가득 차 아주 놀라운 공간이며, 따뜻한 자연 재료를 사용하고, 스칸디나비아 건축과 비슷해 보이지만 덴마크 인을 위한 아주 남다른 건축을 창조하는 건축으로 알려져 있다.

Henning Larsen이 이것을 국제적으로 완성하였다. ▣



Harpa, Reykjavik, Iceland, 2011 / Nic Lehoux